



## 미 증시, 6월 FOMC 경계심리로 혼조세

### 미국 증시 리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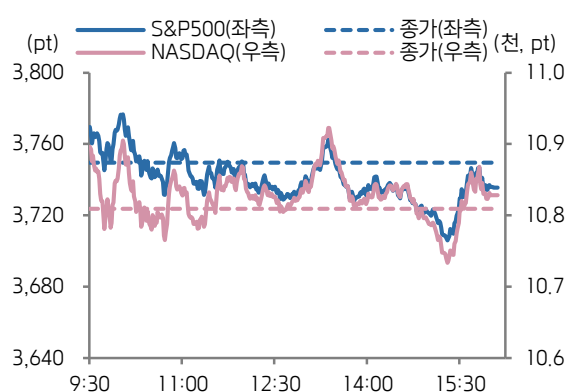
14 일(화) 미국 증시는 최근 2 거래일 동안 연이은 폭락세 과도 인식, 오라클(+10.4%)발 화재 등으로 장 초반 반등에 나섰으나, 이후 6월 FOMC 경계심리 확산 속 10년물 금리 상승 등이 장중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며 혼조세로 마감(다우 -0.5%, S&P500 -0.38%, 나스닥 +0.18%, 러셀 2000 -0.39%).

CME FedWatch 기준 6월 FOMC에서 75bp 인상 가능성이 90%대까지 상승한 가운데, 더들리 뉴욕 전 연은 총재는 “지난 주 소비자물가 지표는 인플레이션과 기대 인플레이션을 더 불안하게 하는 소식”이었다고 발언하며 75bp 인상 가능성을 언급. 이에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3.48%까지 상승하며 2011년 이후 최고치, 2년물 금리 역시 3.45%까지 상승하며 2007년 이후 최고치 기록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일 낙폭이 심했던 나스닥에 저가매수세 유입 및 개별 기업 화재가 전해지며 소폭 반등.

미국 5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.8%(예상치 10.9%, 전월치 11.5%) 상승을 기록하며 예상치를 소폭 하회, 두 달 연속 증가세가 둔화되었지만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 기록. 근원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8.3%(예상치 8.6%, 전월치 8.6%). 에너지(45.3%) 및 식료품(13.0%) 부문의 물가가 크게 상승한 것에 기인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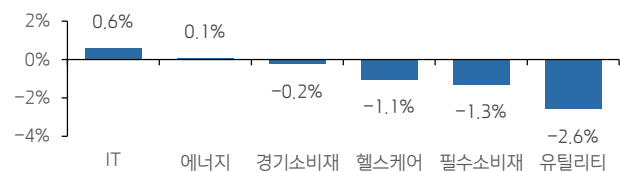
업종별로 IT(+0.6%), 에너지(+0.1%) 업종만이 상승한 가운데 유틸리티(-2.6%), 필수소비재(-1.3%), 헬스케어(-1.1%) 업종의 낙폭이 컸음. 오라클(+10.4%)이 인프라 클라우드 사업의 분기 매출이 증가한 영향으로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한 영향으로 급등하며 나스닥 지수의 상승을 견인. 코인베이스(-0.83%)는 경영진인 경기침체 때문에 직원의 18%를 감원한다는 계획을 밝히며 전일에 이어 추가 하락.

### S&P500 & NASDAQ 일종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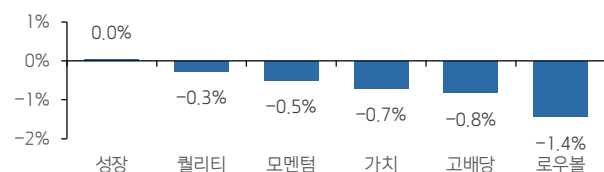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###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###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## 주요 지수

주식시장			외환시장		
지수	가격	변화	지수	가격	변화
S&P500	3,735.48	-0.38%	USD/KRW	1,286.36	+0.16%
NASDAQ	10,828.35	+0.18%	달러 지수	105.48	+0.38%
다우	30,364.83	-0.5%	EUR/USD	1.04	+0.01%
VIX	32.69	-3.91%	USD/CNH	6.76	+0.02%
러셀 2000	1,707.83	-0.39%	USD/JPY	135.47	+0%
필라. 반도체	2,689.89	+0.63%	채권시장		
다우 운송	13,239.19	+2.12%	국고채 3년	3.555	+2.5bp
유럽, ETFs			국고채 10년	3.685	+0.7bp
Eurostoxx50	3,475.18	-0.78%	미국 국채 2년	3.427	+7.3bp
MSCI 전세계 지수	593.77	-0.65%	미국 국채 10년	3.473	+11.4bp
MSCI DM 지수	2,545.05	-3.66%	원자재 시장		
MSCI EM 지수	1,016.46	-3.62%	WTI	118.93	-1.65%
MSCI 한국 ETF	60.96	+1.16%	금	1813.5	-1%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



##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

###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

MSCI 한국 지수 ETF 는 +1.16% 상승, MSCI 신흥국 ETF 는 +1.39% 상승. 유렉스 야간선물은 0.73% 하락. NDF 달러/원 환율 1 개월물은 1289.4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, 달러/원 환율은 3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.

### 주요 체크 사항

1. 한국시간 16 일 새벽 발표 예정인 6 월 FOMC 경계심리 심화 가능성
2. 장중 발표 예정인 중국 소매판매, 산업생산 등 5 월 실물경제지표 결과
3. 장 개시전 동시호가때의 전반적인 종목들의 주가 변동성 확대 가능성

##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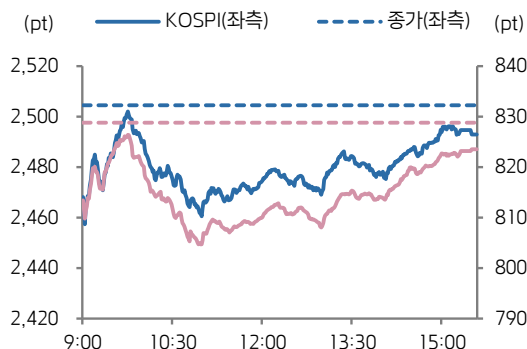
미국의 5 월 생산자물가(10.8%YoY, 예상 10.9%)가 4 월(10.9%)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는 점은 2 분기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전망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(근원 생산자물가 8.3%, 4 월 89.6%). 그러나 미 10 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3.5%대 직전까지 급등했다는 점에서 추정해볼 수 있듯이, 현재 시장참여자들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여부를 떠나서 고 인플레이션 장기화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 전망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.

지난 5 월 FOMC 에서 파월 의장은 75bp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음에도, 지난 10 일 소비자물가 쇼크 이후 시장에서 프라이싱 하고 있는 6 월 75bp 인상 확률은 90%대, 7 월 75bp 인상 확률은 88%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. 이는 6 월, 7 월 FOMC 에서 자이언트 스태프 기정사실화됐으며, 연준이 6 월 FOMC 에서 75bp 인상과 더불어 포워드 가이드를 정책 경로 변경을 시장 신뢰를 회복시키지 못한다면 7 월 FOMC 까지도 변동성 장세가 수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. 7 월 후반부 들어서야 본격적인 2 분기 실적시즌에 들어가는 만큼, 6 월 FOMC 이후에도 당분간 매크로 에 대한 증시 민감도가 높은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.

전거래일 LG 에너지솔루션발 화재 등으로 낙폭을 축소하는데 성공했던 국내 증시는, 금일 미국 증시 폭락세 진정, 기술적 매수세 유입 등이 반등 재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나, 6 월 FOMC 경계심리가 지수 상단을 제한할 전망. 장중에는 봉쇄조치 해제 효과가 반영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 중국의 소매판매(예상 -7.1%YoY, 전월 -11.1%), 산업생산(-1.0%, 전월 -2.9%) 등 5 월 실물 경제지표 결과에도 영향 받을 것으로 예상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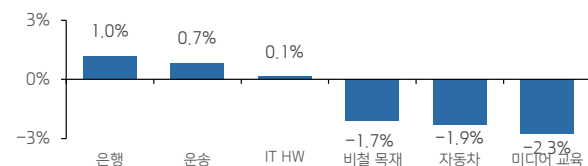
한편, 전거래일 장시작전 동시호가 때 하한가 종목들이 속출하면서 장 개시 직후 전반적인 지수가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, 연이은 증시 하락이 특정 종목들의 레버리지 베팅(미수 신용 등)에 대한 반대매매 물량 출회 리스크를 높이고 있는 모습. 다만, 이 같은 강제성을 띤 매도 물량 출회로 인한 주가 하락은 펀더멘털과 무관한 가격 움직임이라는 점을 감안 시, 지속성이 짧은 악재로 볼 수 있으며 또 저가 매수 기회라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.

## KOSPI & KOSDAQ 일종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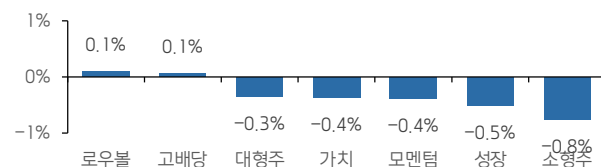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## 업종별 주가 등락을 상하위 3



##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Quantwise, Enguide, 키움증권

Compliance Notice

-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-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고지사항

-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 -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